

한나라 재창당 문제 놓고 쟁쟁해지나

나로호 3차 발사 내년 하반기 예상

한·러, 14~16일 모스크바서 기술 협의

쇄신과 정두언 “재창당 안되면 이탈 의원 패 있다”

친박 이경재 “쇄신 의지 중요... 탈당명분 삼지말라”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 쇄신의 핵심인 재창당 문제를 놓고 격한 논쟁에 빠졌다. 재창당 수준의 대대적 쇄신을 주장하는 친박계(친박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쇄신파가 탈당의 배수진을 치면서 실질적 재창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12월 1차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비대위가 내년 총선(4월 11일)까지 유지되면서 공천개혁 등을 맡느냐, 아니면 총선 전 재창당을 위한 전대를 열 것이냐를 놓고 친박계와 친이 명박계(친이계) 쇄신파가 팽팽히 맞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재창당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쇄신파가 13일 2차 의총에서 재창당 여부에 대한 표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창당 불발시 탈당 가능성을 거론, 자칫 당이 분열 위기로 치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태근·김성식 의원은 이날 2차 의총에서 탈당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쇄신파가 재창당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권력지형 전체가 요동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날 열린 1차 의총에서는 발언자 33명 중 64%인 21명이 재창당 필요성을 언급, 한나라당의 큰 틀을 유지하는 리모델링보다는 재창당을 통한 신당론이 우세를 보였다.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 총·대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창당은 조건이 아닌 대전제로, 박 전 대표는 지도력을 보장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하면 지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창당이 안 될 경우 ‘이대로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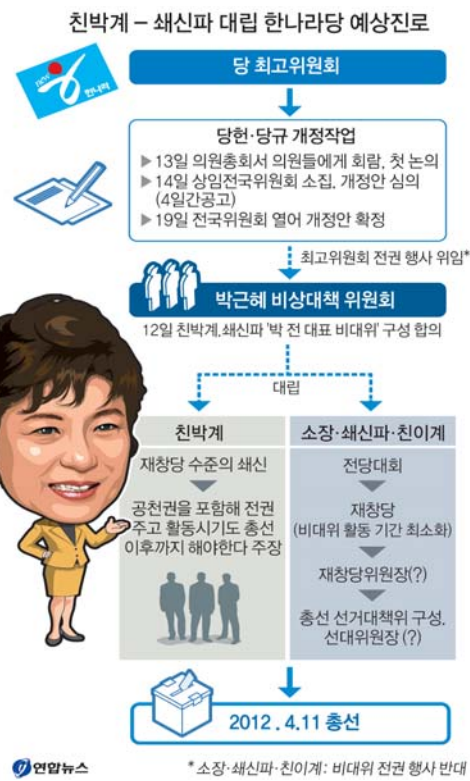
일부 의원들은 이미 재창당 불발시에 대비해 ‘탈당서’를 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박계 중진 이경재 의원은 “쇄신파가 계속 재창당을 고집하면 박 전 대표로서도 선택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표에게 전면에 나와 책임지라고 하면서 결국 한 달짜리 창당준비위원회나 하라는 요구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로 창당한다고 해서 우리 당으로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오겠는가. 쇄신 의지가 중요한 것이 국민이 보기에 리모델링이나 창당이나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양 측간 이 같은 팽팽한 입장차 속에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내주 출범 이후에도 첩보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근·김성식... 한나라 탈당 도미노

한나라당의 대표적 개혁·쇄신파인 정태근 의원이 13일 탈당을, 김성식 의원은 조건부 탈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두 의원 외에도 탈당을 고려하는 인사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열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분열 또는 분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물론 여론의 권력지형과 내년 총·대선 판도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론발(發) 정계개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박(친박계)측의 재창당 집단 거부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힌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더 이상 이런 낡은 구조를 온존시키는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탈당을 결심했다”면서 “오늘은 한나라당을 떠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낡은 보수와 정말 무책임한 진보가 정국적 이해만 갖고 대립하는 현 정치가 간절히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치가 이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절망했다”면서 “오늘의 배

위 논의과정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거둬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의총에서 “지금 국민의 명령은 한나라당을 근본적으로 혁명 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이 주저 주저하고 있다”면서 “전국위에서 신당 창당 수준의 재창당을 하는 쪽으로 당헌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는 허허벌판으로 나가 이 낡은 정치판과 부딪치는 정치의병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여준 “안철수, 정치적 도전성 부족”

“박근혜는 수직적 리더십 극복해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적 멘토로 주목받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밤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원장에 대해 “정치적 도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출판을 기념해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가진 시사콘서트에서 “창원(대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도 힘든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창업’

하려면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도전성은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원장은 평소 ‘정치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해왔는데 그런 분에 대해 정치적 자질을 말하는 건 무례할 수 있다”면서도 “명예를 중시하고 하얀 옷에 흙탕물이 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결백성, 그런 의식으로는 한국정치 현실에 도전하는 게 힘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사회 중심의 정치쇄신

운동에 대해 “안철수라는 사람을 빼고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몽땅 에너지를 갖고 ‘제3세대’로 빠진 상태라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싶어 도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그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 청와대에 있었기에 ‘수직적 리더십’이 내면화됐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표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큰 뜻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0세 이상 ‘상수노인’ 2060년 8만명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가 의학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2060년까지 30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1800여명 수준인 상수(上壽)노인이 8만 명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상수는 사람 생애 중 최고의 수명인자 뜻으로, 100세를 일컫는다.

13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100세 이상 노인은 2060년에

총인구의 0.19%인 8만4283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836명으로 집계돼 2005년(961명)보다 91% 늘었다. 내년에는 2716명(0.01%), 2030년 1만2305명(0.02%)으로 늘어난 뒤 2040년에는 2만 5869명(0.05%), 2050년 3만8125명(0.08%)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

측됐다. 성별로는 2012년~2060년에 100세 이상 남자가 58.7배 늘지만 여자는 31.4배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외인구 유입을 전제로 한 가정에 따른 것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가정하면 100세 이상 인구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정을 적용하면 2060년에 100세 이상 인구는 20만4017명으로 총인구의 0.3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다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독성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병의, 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경매특자

-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I세-80%+a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

흥극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주최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관리로 신청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 순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